

아시아 전통공예·문화 새로운 가치 모색

● 15-17일 ACC '아시아 공예의 미래' 개최

브루나이 태국 현지 장인 초청 시민 워크숍 18일 국내 대표 장인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아시아 무형 문화유산 가치 확산 및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5-17일 ACC 특별열람실에서 '아시아 공예의 미래'를 주제로 공예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한국과 브루나이 수교 40주년, 한국과 태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다.

ACC는 브루나이와 태국 대사관, 문화부, 현지 공예 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 공예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브루나이 예술 수공예 교육센터, 태국 지속가능 예술 공예 연구소(SACIT), 태국 감 빌리지와 협력해 분야별 대표 공예 장인들이 초대됐다.

15-17일 기관 및 분야별로 하루 2 회씩 시민 대상 공예 워크숍이 총 6 회 열린다.

태국 북부 전통 대나무 공예 '타

라에우(Ta Laew)' 드림캐처, 태국 남부에서 유래한 전통 직조 공예 '얀 리파오(Yan Lipao)' 뱅글, 브루나이 전통 공예품으로 발레로 부터 음식을 보호하는 음식 덮개인 '투둥 돌랑(Tudung Dulang)'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염색장정관 채전수교육관(나주)과 조선대에 서 국내 대표 장인들의 교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브루나이 예술 수공예 교육센터는 브루나이 전통 공예 부흥을 위해 설립된 브루나이 왕실 산하 기관이다. 다양한 전통 공예 기술을 교육하며 전통 공예의 예술성을 보존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태국의 수도로 번영했던 아우타야에 위치한 SACIT은 태국 왕실 산하 기관이다. 지속 가능한 성을 중심으로 한 운영 방식을 채택해 현지 장인들의 친환경적 공예품 제작 지원 및 전통 공예의 현



태국 감 빌리지

대화를 도모하고 태국 전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감 빌리지는 태국 제2의 도시 북부 치앙마이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지역 사회와 협력해

현지 장인들의 예술적 역량을 지원하고 태국 전통 예술 및 공예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의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전통 공예 및 문화 예술 교육·워크숍·전시·체험·공예 상품 개발 및 판매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워크숍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중학생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이강현 전당장은 "현지 초청 장인들이 진행하는 이번 공예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아시아 전통 공예와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권 작품상에 심이안 감독 '빼고'

'카운트 업!'...15회 광주여성영화제 성료

'카운트 업(Count Up)'을 주제로 펼쳐진 15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8일 개막해 5일간 진행된 올해 광주여성영화제에서는 9개국 5편의 영화가 상영된 가운데, 40여명의 게스트와 약 3천여명의 관객들과 함께 했다.

10일 폐막식에서는 광주여성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권 단편경선' 시상이 진행됐다. 올해 접수된 46편 가운데 본선 진출작 12편에 대해 각각 권 작품상, 특별상, 관객상 부문 심사가 이뤄졌다.

본선 심사위원은 모현신 감독, 지난해 권 작품상 '윈의 뜨개질' 조하나 감독, 김은지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맡았다.

영예의 권 작품상에는 심이안 감독의 '빼고'가 선정됐다. 권 특별상은 최승현 감독의 '영아의 섬', 권 관객상은 임지선 감독의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가 받았다.

심사위원 측은 "이번 본선 작품들은 각자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도달하려는 의지



심이안 감독 영화 '빼고' 스틸컷

가 돋보였다"며 "특히 권 작품상 수상작 '빼고'는 세상을 떠난 엄마라는 존재의 무게감과 세상에 남아있는 딸의 일상 속 발견되는 엄마의 흔적들을 세밀하게 조각하면서 감정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폐막작으로는 민아영 감독의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가 상영됐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권리를 확보할 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장애인도 함께 이동하고, 함께 교육받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외침을 날라온 울림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명진기자



'3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우수작 전시

내달 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다목적실

국립광주박물관은 다음달 8일까지 전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제3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창의력·묘사력·표현력을 기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한 으뜸상 3명, 비금상 6명 및 솜씨상 20명, 꿈나무상 37명 총 66명의 수상작이 전시된다.

최고상인 으뜸상은 박서연(광주동초 4)의 '당포전양승첩도의 해진 이야기', 문가윤(치평초 2)의 '찾그릇 사자

모양 연적', 전연재(계림초 1)의 '분청 사기 물고기 무늬 편병'이 선정됐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며 "대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뛰어난 작품들이 출품됐다"고 평했다.

우수작품전 기간 동안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전시작품에 대한 인기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점수가 높은 5명의 어린이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퇴직공무원들이 선사하는 '사랑의 하모니'

광주시행정회·광주시행정동우회, 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지역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광주시행정회와 광주시행정동우회가 '사랑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광주시행정동우회는 12일 "오는 16일 오후 4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행복어울림합창단의 정기공연 '광주시민 초청 사랑나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복어울림합창단은 '사랑'을 주제로 황성철 지휘와 정인호 피아노 반주 아래 '별', '비요일의 꽃비', 'Noi diamo l'amore'를 비롯해 베르디 오페라 중 '운명의 힘', '리골레토' 등을 노래한다. 또 가을 분위기에 맞춰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달라일라', '최진사막 셋째딸' 등의 레파토리오 선보인다.

행복어울림합창단은 다양한 연령층 50여명으로 구성된 대형 혼성합창단으로 광주시행정회 단체 중 하나이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수백만명의 독자들에게 '아침편지'를 배달하고 있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재단의 고도원 이사장이 특별초청돼 'You raise me up'을 부르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전할 예정이다. /박선경기자

강왕기 광주시행정동우회 회장은 "이번 무대를 위해 최종배 단장을 중심으로 지난 봄부터 레파토리를 준비했다"면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깊은 감동의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정 및 자치구 구정 업무를 마친 2만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사)광주시행정회와 광주시행정동우회는 합창단 외에도 행정사 업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회원들에게 공직 퇴직 이후의 삶을 살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박선경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시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